

#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대상관계적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U시〉의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 Effect of Tea Culture Therapy Program Based on Object Rel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Juvenile Probationers : Focused on Juvenile Probationers in 〈U-city〉

김인숙

부산여자대학교 사회복지재활과

In-Sook Kim(ts3260@hanmail.net)

### 요약

본 연구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사회 적응에 있어서 핵심적 부분이라 볼 수 있는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대상관계적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 적용을 통해 청소년들이 프로그램 참여 전후 대인관계에 어떤 변화과정을 보이는지 검증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하여 질적 분석 및 양적 분석을 병행한 통합적 접근방식이 시행되었다.

프로그램 전체 단계에서 체계적 관찰을 통해 이루어진 질적 분석 결과, 청소년들의 태도, 적극적 참여 정도,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진지함, 분노조절 및 감정의 이해 부분이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양적 분석 결과, 실험집단의 사전, 사후 비교에서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 등의 모든 대인관계 하위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보호관찰 청소년 | 대인관계 | 대상관계 | 차문화치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tea culture therapy program development for the improvemen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juvenile probationers, which is a key factor of social adaptability of juvenile probationers. After developing a tea culture therapy program,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the program empirically, by applying to juvenile probationer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mploys an integrative approach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It is shown from the qualitative analysis that juvenile probationers' positive attitude, active participation, seriousnes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ger management, and sympathy are considerably progressed. The results from qualitative analysis indicate that the sub-dimension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such as satisfaction, communications, trust for others, affinity, sensitivity, openness, and understandability are significantly improved.

■ keyword : | Juvenile Probationers | Interpersonal Relationship | Object Relations | Tea Culture Therapy Program |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사회가 발전해 가면서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청소년 비행 또는 청소년 범죄일 것이다. 청소년 범죄의 문제는 갈수록 연령이 낮아지고 흉악해지는 현상을 나타나고 있어 각국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형사제재 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그 방법을 찾고 있는 실정이다[1].

청소년 비행이란 소년의 비행행위를 성인의 범죄행위로부터 분리하여 취급하기 위해 설정한 개념으로 미성년인 청소년이 반사회적 행위를 하거나 사회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민하영(1992)은 청소년 비행을 폭행과 금품갈취, 강도, 강간과 같은 대인 비행, 방화, 절도, 공공기물 파괴 등과 같은 대물비행 그리고 무단결석과 가출, 음주, 흡연, 성경험 등과 같은 지위비행 등으로 구분하였다[2].

많은 사람들에게 청소년 비행은 예방되거나 해결되어야 할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일탈적 행동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소년법 제1조에도 반사회성을 지닌 청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치료프로그램들은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치료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의 변화 동기를 높이는 내용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호관찰 수감명령을 받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프로그램 또한 청소년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변화 인식에 의한 치료프로그램일 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3].

한편, 보호관찰 청소년의 비행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한 대인관계에서의 부조화로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인관계 속에서 나타난 상황적 요인을 고려한 분노조절, 가족관계 회복 등 대인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그리고 보호관찰 청소년은 인내력과 집중력이 약한 편이라 수동적 학습방식의 수강 프로그램 보다는 체험위주의

수강 프로그램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도 보호관찰 청소년은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이므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통찰 프로그램과 대인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비행의 개인적인 요인인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성, 대인관계 등이 높은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음에 착안하여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자아정체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운영되어 오고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왔지만 [4][5],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양적인 측면에서의 그 효과를 검증하고 있어서 수량적인 변화에서 간과되기 쉬운 정성적인 부분의 효과검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연구대상들이 직접 자기점검 방법으로 검사 도구에 응답하는 데서 발생하는 평정의 오류 등과 같은 측정 방법상의 한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한계점도 지적되고 있다.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치료프로그램의 경우 양적인 측정에서 측정할 수 없는 비언어적인 요소들과 그 변화과정에 대한 효과성 검증이 그 동안의 연구에서는 간과되어 왔고, 대부분 그 사례수가 적고 다양한 상황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치료의 효과를 위해서는 질적인 측면에서의 변화과정을 면밀하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인론적 접근인 대 상관계적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으로 대인관계를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 후 프로그램 참여 전후 대인관계가 어떤 변화과정을 보이는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보호관찰 청소년의 특징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성적 변화에 따른 긴장과 불안과 함께 인지과 자의식의 발달로 가치관의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급격한 심리, 정서적 변화는 청소년이 건전한 성인으로써 발달하는

데 큰 위협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발달 단계적 위기는 청소년을 불안정한 상태로 이끌게 되며, 이러한 위기는 입시위주의 교육과 학교폭력, 유해적 사회환경 등과 같은 사회 환경적 위협 상황과 맞물려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

청소년 비행이라 함은 넓은 의미로는 반사회적 행위와 비사회적 행위인 불량행위를 포함하며, 소년의 비행행위를 성인의 범죄행위로부터 분리하여 취급하기 위해 설정된 개념이다. 비행청소년은 비행행위를 하는 청소년을 일컫는 말인데, 대부분은 법률적인 개념보다 넓은 의미에서 비행청소년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비행청소년 중 보호관찰청소년은 법률적인 개념에서 범죄행위<sup>1)</sup>, 촉법행위<sup>2)</sup>, 우범행위<sup>3)</sup>를 하여 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보호관찰청소년은 비행청소년의 대표적인 케이스일 뿐 아니라 위기청소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6][7].

한편, Myers(1980)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비행유발이유에 대한 설명에서, 열등감을 지닌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의 긍정적 정체감을 유지하기 위해, 자아의 손상감을 보상하기 위해, 그리고 우월감을 표현하기 위해 비행을 저지른다고 하였다. 즉 높은 자긍심이 위협받을 때 공격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의 우월감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의 비행특성을 구분한 이애령(2003)에 의하면 보호관찰 청소년은 자기나 타인을 비롯한 상황을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지각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경험을 왜곡하여 지각할 뿐 만 아니라 합리적인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하며, 도덕성과 가치의식이 결여되어 있어 개인의 존재가치를 인정받으려 하는 욕구가 지속적으로 좌절되는 것을 경험하며, 일반청소년에 비해 대체로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는 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8].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대체로 첫째, 자존심이 낮으며

좌절감으로 위축되어 있고, 둘째, 주위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채 행동으로 옮기는 등 충동적이며 타인의 권리와 감정을 공감하지 못해 타인의 권리와 감정의 침해에 대해 죄의식을 많이 느끼지 못하며, 셋째, 가정에서의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많은 갈등을 겪고 있으며, 그들이 저지른 비행을 계기로 사회적 통제상황에 놓이게 되면 더욱 큰 욕구좌절을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잘 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넷째, 일반청소년에 비해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하고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적절한 대처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9-11]. 또한, 보호관찰 청소년은 부정적 자아존중감과 신체적 공격성, 짜증, 집중력 저하, 좌절에 대한 인내심 부족, 부적합한 죄의식, 언어적 공격성, 반사회적 태도, 권위도전, 냉담함, 여가시간의 미활용, 흥미와 관심사의 부재, 불건전한 또래관계 등의 개인적 특성과 더불어 보호자의 불충분한 지도감독과 자녀행동 통제 불능, 부적절한 훈육, 자녀양육의 비밀관성, 부모와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 등의 가족적 특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관계형성 및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12].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 중 법률적 의미에서 범죄행위를 하여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으로 수강명령을 받아 프로그램에 참석한 대상으로 한정한다.

## 2. 대상관계이론과 차문화치료의 관계

대상관계이론은 클라이언트의 어린 시절 형성된 내적인 대상관계가 현재 실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이해하고 사회복지사와의 관계를 치료적으로 활용하며 클라이언트의 자아구조를 강화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하여 좀 더 현실적으로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며 상담에서의 관계경험을 실제 생활에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목표는 내적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그리고 적대적이거나 두려운 감정들을 긍정적인 감정과 마음속에 나란히 병존시킴으로써 클라이언트의 통합된 자아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차문화치료란 차문화치료가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들을 도와 심신명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차문화

1) 형법법규에 저촉되는 행위

2) 형법법규에 저촉되지만 13세 이하 10세까지의 형사미성년자가 한 행위

3) 형법법규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는 자로서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법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의 행위

적 좋은 관계 경험과 환경을 통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치료를 시행해나가는 것을 말한다.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은 차 다루는 일과 관련 된 제반 동작, 즉 행동을 통한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차를 다른 사람과 함께 마시고 대접받는 과정 속에서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적용을 위한 매개체로서의 사회적 기능을 도와준다. 그리고 외로움과 고독 극복 및 정서 안정의 위한 비공식적 지지체계를 구축하여 정서적인 안정을 갖게 해주며, 그리고 인간의 내면 성장과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인지적 기능 향상 등에 목적을 두고 개발된 프로그램이다[3].

본 연구에서는 대상관계를 적용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에서는 긍정적 경험의 함입, 분화, 자기통합, 행동 조성강화, 친구와 소통 통합, 가족속의 분화, 가족과 소통, 통합, 세상과 소통통합이다.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편안하고 따뜻한 차문화 치료적 환경을 제공하여 긍정적 경험의 함입, 정서적 연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진행자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역기능 돌출 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그 속에 긍정적 측면 성장 가능성을 볼 수 있도록 안아주기, 받아주기, 버터주기로 수용하였다. 또한 '빈 찻상 기법-내면아이'를 통해 어린 시절의 상처를 직면하고 이해하고 명료화와 해석으로 관계치료를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개인 내적 심리치료이론으로 대상관계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의 구조가 안아주기, 돌봐주기, 버터주기의 흐름 속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자기효능감이 증가하고, 공격성감소하고 자기 통제 증진되며, 대인관계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과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의 이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개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존경심, 수용의 정도,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허용적인 가정적인 분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대인관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목표설정하기, 자아욕구의 일반화하기, 즉각적이고 정확한 피

드백, 모델링, 성공경험, 프로그램의 메커니즘으로 긍정적인 개인적 강화와 자신의 체력과 신체기능을 조절하는 느낌이 높아지는 것 등을 통해 대인관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 회기마다 명상, 나의 일주일 지난 생활이야기 하기, 자신 안아주기를 하였으며, 가족화 그리기, 미래의 나의 모습 그리기, 차의 유래와 성분 효능알기, 다도구 쓰임알기, 빈 찻잔 요법, 차생활 예절 익히기, 차 우려내고 대접하기 등 하위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각 회기별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연구 대상은 수강명령 40시간을 부가 받은 보호관찰 청소년으로 한정하였다. 소년보호처분은 가정법원의 처분유형에 따라 1호에서 10호까지 분류되는데 그 중에서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2호 처분인 수강명령 40시간을 공통으로 부과 받은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보호관찰 청소년, 가족, 그리고 친구, 지역사회 노인을 포함한 지역사회 요소까지 프로그램에 반영하였다. 또한 본 프로그램의 대인관계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비교하였다.

### 2. 연구설계 및 절차

프로그램은 2013년 3월 21일부터 4월 19일까지 주 2회, 13시에 시작하여 17시까지 U시 보호관찰소 예다프로그램실에서 진행되었다. 강의실은 한옥의 안방느낌이 나는 좌실로 꾸며져 있으며 청소년들의 주의집중 시간을 고려하여 50분 수업 후 10분간 쉬는 시간을 가졌으며, 1회기 당 4시간씩 총 10회기 동안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 3. 측정도구

대인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Schlein & Guerny(1977)의 relationship change scale을 문선모(1980)가 번안한

인간관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7가지 하위 영역 총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5점 likert 척도이다. 하위요인은 만족감(4문항), 의사소통(4문항), 신뢰감(3문항), 친근감(3문항), 민감성(2문항), 개방성(5문항) 및 이해성(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선모(1980)에서

하위 요인의 내적 신뢰도는 .86에 분포하였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인간관계 척도의 신뢰도계수(cronbach a)는 .93이다. 분석을 위해 설문조사 된 인간관계 척도의 하위 영역별 문항구성과 내적신뢰도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1.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

회기	주제	내용
1	프로그램 및 자기소개 · 성격유형 찾기 나누기	▶방문 목적 및 향후활동 소개, 프로그램 목표, 우리들 약속 ▶차명상, 차마시기, 별칭짓기, 입실예절 ▶MBTI 성격 유형 나누기 ▶프로그램 소감 나누기, 다음 시간 프로그램 소개, 명상 후 마무리
2	차마음 내마음	▶차명상, 참나다레 ▶다박물관 견학 ▶차의 유래, 차의 효능, 다도구 명칭 알기 ▶차의 색, 향, 미를 통한 나의 마음 느끼기 ▶프로그램 소감 나누기, 다음 시간 프로그램 소개, 명상 후 마무리
3	나를 위한 차만들기	▶ "부동향차보" 로 몸차, 맘차, 영차, 내차 만들기 ▶프로그램 소감 나누기, 다음 시간 프로그램 소개, 명상 후 마무리
4	자기분노 만나기	▶차명상, 참나다레 ▶감정의 주사위, 다양한 감정 단어 표현 ▶프로그램 소감 나누기, 다음 시간 프로그램 소개, 명상 후 마무리
5	분노표출, 분노 위로하기	▶빈찾상 - 내면아이 ▶프로그램 소감 나누기, 다음 시간 프로그램 소개, 명상 후 마무리
6	친구와 소통	▶차명상, 참나다레 ▶예절 수업(입실예절, 방석예절) ▶절하는 법(공수, 남자절, 여자절) ▶호칭예절, 공공예절 ▶프로그램 소감 나누기, 다음 시간 프로그램 소개, 명상 후 마무리
7	가족속의 나	▶차명상, 참나다레 ▶접빈다레 ▶프로그램 소감 나누기, 다음 시간 프로그램 소개, 명상 후 마무리
8	가족과의 소통	▶차명상, 참나다레 ▶부모님께 예, 절 ▶가족다레 ▶장점 부채 만들기 ▶부모님과 함께 가족상담 ▶프로그램 소감 나누기, 다음 시간 프로그램 소개, 명상 후 마무리
9	지역사회와 소통	▶차명상, 참나다레 ▶지역사회 찾차리 봉사(다함께 차, 차, 차 행복다레) ▶어르신들과 소통의 장 ▶프로그램 소감 나누기, 다음 시간 프로그램 소개, 명상 후 마무리
10	정리 평가	▶차명상, 참나다레 ▶감점강화 차부적, 감사일기(희망 메시지) ▶자격증 취득, 상장수여 ▶전체 프로그램 소감 나누기, 명상 후 마무리

표 2. 대인관계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계수

영역	문항 수	문항	신뢰도
만족감	4	1, 2, 3, 4	.70
의사소통	4	9, 14, 18, 19	.76
신뢰감	3	15, 23, 24	.75
친근감	3	5, 11, 16	.68
민감성	2	6, 10	.64
개방성	5	12, 17, 20, 21, 22	.71
이해성	4	7, 8, 13, 25	.72
전체	25		.93

#### 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사전, 사후 검사설계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실증적 연구는 유사 실험 디자인설계인 한편 비동일 통제 집단디자인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선정하여 사전,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내용적 측면을 세부적으로 연구하고 보완하기 위해 질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비동일 통제 집단디자인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이 약하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최대한 동일한 집단으로 구성하였으며, 맨-위트니 유 검증을 실시하여 동질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에서의 프로그램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의 차이를 검증하였는데 월곡순 부호-서열 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통계적 분석에서 나타나지 않은 결과들을 프로그램 개발에 적용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회기별 과정평가와 개별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일반적 특성

본 프로그램의 대상은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40시간을 받은 13세에서 19세의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보호관찰 청소년은 U시의 보호관찰소를 이용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보호관찰 청소년 외에 보호관찰 청소년의 부모, 노인재가센터 어르신, 프로그램 진행자, 보조자 등이 참여하였다. 여자 보호관찰 청소년 2명을 제외하고 모두 남자 보호관찰 청소년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프로그램은 폐쇄집단의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집단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집단구성원을 10명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10명의 보호관찰 청소년과 부모에게 프로그램의 목

표 3. 실험집단 보호관찰 청소년의 특성

실험집단 (보호관찰 청소년)	나이/성별	학력	분류심사원 처분유형 (처분기간별)	분류심사원 처분유형 (범죄유형별)	보호관찰 처분경험
1. 옷자	여/15	중재학	1	사기, 횡령사범	1회
2. 뽕뽕	남/14	중재학	2	절도사범	1회
3. 햇살	남/15	중재학	1,2,3,5	특수절도	2회
4. 하늘	남/15	중재학	2,3	폭력사범	2회
5. 날개	남/13	중재학	1	절도사범	1회
6. 굴	남/15	중재학	2,3	폭력사범	3회
7. 나무	남/16	중재학	1,2,4	절도사범	2회
8. 시원한볼바람	남/15	중재학	1,2,3,5	상해	3회
9. 수박같은 시원함	여/17	고등재학	2,3	절도사범	2회
10. 동물의 나라	남/15	중재학	1,2,3	폭력사범	2회

표 4. 통제집단 보호관찰 청소년의 특성

실험집단 (보호관찰 청소년)	나이/성별	학력	분류심사원 처분유형 (처분기간별)	분류심사원 처분유형 (범죄유형별)	보호관찰 처분경험
1. 최○○	16/남	중재학	1,2,4	폭력, 절도	1회
2. 김○○	15/남	중재학	2	폭력	1회
3. 이○○	14/남	중재학	2,3	폭력	1회
4. 조○○	18/여	고등재학	1	사기, 횡령	1회
5. 안○○	19/남	고2중퇴	1,2,3,5	특수절도	2회
6. 이○○	15/남	중재학	2	절도	1회
7. 강○○	17/남	고등재학	1,2,4	폭력	2회
8. 박○○	19/남	고등재학	2,3	폭력	1회
9. 김○○	15/여	중재학	1	절도	1회
10. 오○○	16/남	중재학	1,2,3,5	상해	2회

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한 뒤 모두 참여하였다[표 3].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비교하기 위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보호관찰 청소년과 최대한 유사한 조건으로 10명을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였다[표 4]. 실험집단의 성향과 거의 유사하게 배치하였다.

##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주요변수들의 동질성 검증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 맨-유티니 유 검증(Mann-Whitney U Test)을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에서의 프로그램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의 차이를 검증하였는데 윌콕슨 부호-서열 검증(Wilcoxon Matched-pairs Signed-ranks Test)을 실시하였다. 윌콕슨 부호-서열 검증은 자료의 정규성 가정이 만족되기 어렵고 표본수가 적을 때, 자료의 분포에 대한 연속성과 독립성에 대한 가정만을 전제로 t 검정을 대신하여 집단의 사전, 사후 비교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모수 통계방법이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주요 변수들에 대한 동질성을 검증해 보았다. 다음의 [표 5]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주요변수들의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이다.

대인관계를 하위 요인별 결과로 살펴보면, 만족감은 실험집단이 평균 7.4(SD 1.09), 통제집단이 평균 7.3(SD 1.08)이며, 의사소통은 실험집단이 평균 6.3(SD 1.5), 통제집단이 평균 6.4(SD 1.59)로 나타났다. 신뢰감은 실험집단이 평균 5.3(SD 0.99), 통제집단이 평균 5.4(SD 0.96)이며, 친근감은 실험집단이 평균 5.1(SD 1.6), 통제

집단이 평균 4.1(SD 1.88)로 나타났다. 민감성은 실험집단이 평균 3.8(SD 1.09), 통제집단이 평균 4.1(SD 0.88)이며, 개방성은 실험집단이 평균 7.8(SD 2.43), 통제집단이 평균 7.9(SD 2.23)로, 이해성은 실험집단이 평균 7.7(SD 1.05), 통제집단이 평균 7.7(SD 1.12)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전체 평균은 실험집단이 평균 43.4(SD 7.66), 통제집단이 평균 43.8(SD 5.36)이었고, 각 하위 요인들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대인관계의 점수는 동질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3. 보호관찰 청소년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대인관계 사전사후 비교

다음의 [표 6]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대인관계의 사전 사후를 비교해 본 결과이다. 그 결과 실험집단에서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 등의 모든 하위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감은 사전검사에서 평균 7.4(SD 1.09), 사후검사에서는 평균 12.4(SD 1.66)로 5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소통은 사전검사에서 평균 6.3(SD 1.5), 사후검사에서 평균 11.0(SD 0.87)으로 4.7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감은 사전검사에서 평균 5.3(SD 0.99), 사후검사에서 평균 9.4(SD 0.55)로 4.1점 높아졌으며, 친근감은 사전검사에서 평균 5.1(SD 1.6), 사후검사에서 평균 9.0(SD 1.2)으로 3.9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감성은 사전검사에서 평균 3.8(SD 1.09), 사후검사에서 평균 6.2(SD 1.11)로 2.4점 높아졌

표 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대인관계 동질성 검증

구분			실험집단	통제집단	Z
			M(SD)	M(SD)	
보호 관찰 청소년	대인관계	만족감	7.4(1.09)	7.3(1.08)	-.233
		의사소통	6.3(1.5)	6.4(1.59)	-.150
		신뢰감	5.3(0.99)	5.4(0.96)	-.623
		친근감	5.1(1.6)	5.0(1.48)	-.164
		민감성	3.8(1.09)	4.1(0.88)	-1.84
		개방성	7.8(2.43)	7.9(2.23)	-.227
	이해성	7.7(1.05)	7.7(1.12)	-.434	
전체		43.4(7.66)	43.8(5.36)	-.493	

\*p<.05 \*\*p<.01 \*\*\*p<.001

표 6.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대인관계 사전사후 비교 결과

구분		N	사전검사	사후검사	Z		
			M(SD)	M(SD)			
실험 집단	대인 관계	만족감	음의 순위 양의 순위 동률 합계	0 <sup>a</sup> 10 <sup>b</sup> 0 <sup>c</sup> 10	7.4(1.09)	12.4(1.66)	-2.810***
		의사소통	음의 순위 양의 순위 동률 합계	0 <sup>d</sup> 10 <sup>e</sup> 0 <sup>f</sup> 10	6.3(1.5)	11.0(0.87)	-2.826***
		신뢰감	음의 순위 양의 순위 동률 합계	0 <sup>g</sup> 10 <sup>h</sup> 0 <sup>i</sup> 10	5.3(0.99)	9.4(0.55)	-2.849***
		친근감	음의 순위 양의 순위 동률 합계	0 <sup>j</sup> 10 <sup>k</sup> 0 <sup>l</sup> 10	5.1(1.6)	9.0(1.2)	-2.834***
		민감성	음의 순위 양의 순위 동률 합계	0 <sup>m</sup> 10 <sup>n</sup> 0 <sup>o</sup> 10	3.8(1.09)	6.2(1.11)	-2.822***
		개방성	음의 순위 양의 순위 동률 합계	0 <sup>p</sup> 10 <sup>q</sup> 0 <sup>r</sup> 10	7.8(2.43)	14.2(1.79)	-2.814***
		이해성	음의 순위 양의 순위 동률 합계	0 <sup>s</sup> 10 <sup>t</sup> 0 <sup>u</sup> 10	7.7(1.05)	13.2(1.56)	-2.842***
통제 집단	대인 관계	만족감	음의 순위 양의 순위 동률 합계	0 <sup>a</sup> 1 <sup>b</sup> 9 <sup>c</sup> 10	7.3(1.08)	7.4(1.15)	-1.001 <sup>v</sup>
		의사소통	음의 순위 양의 순위 동률 합계	0 <sup>d</sup> 1 <sup>e</sup> 9 <sup>f</sup> 10	6.4(1.59)	6.35(1.40)	-1.002 <sup>v</sup>
		신뢰감	음의 순위 양의 순위 동률 합계	0 <sup>g</sup> 1 <sup>h</sup> 9 <sup>i</sup> 10	5.4(0.96)	5.5(0.77)	-1.000 <sup>w</sup>
		친근감	음의 순위 양의 순위 동률 합계	0 <sup>j</sup> 1 <sup>k</sup> 9 <sup>l</sup> 10	5.0(1.48)	4.9(1.24)	-1.001 <sup>v</sup>
		민감성	음의 순위 양의 순위 동률 합계	0 <sup>m</sup> 1 <sup>n</sup> 9 <sup>o</sup> 10	4.1(0.88)	4.2(0.77)	-1.001 <sup>v</sup>
		개방성	음의 순위 양의 순위 동률 합계	1 <sup>p</sup> 1 <sup>q</sup> 8 <sup>r</sup> 10	7.9(2.23)	8.0(2.01)	-0.443 <sup>v</sup>
		이해성	음의 순위 양의 순위 동률 합계	1 <sup>s</sup> 1 <sup>t</sup> 8 <sup>u</sup> 10	7.7(1.12)	7.9(1.14)	-0.575 <sup>v</sup>

\*p<.05 \*\*p<.01 \*\*\*p<.001

- a. 사후 만족감(사전 만족감)
- b. 사후 의사소통(사전 의사소통)
- c. 사후 신뢰감(사전 신뢰감)
- d. 사후 친근감(사전 친근감)
- e. 사후 민감성(사전 민감성)
- f. 사후 개방성(사전 개방성)
- g. 사후 이해성(사전 이해성)
- h. 사후 만족감=사전 만족감
- i. 사후 의사소통=사전 의사소통
- j. 사후 신뢰감=사전 신뢰감
- k. 사후 친근감=사전 친근감
- l. 사후 민감성=사전 민감성
- m. 사후 개방성=사전 개방성
- n. 사후 이해성=사전 이해성
- o. 사후 만족감(사전 만족감)
- p. 사후 의사소통(사전 의사소통)
- q. 사후 신뢰감(사전 신뢰감)
- r. 사후 친근감(사전 친근감)
- s. 사후 민감성(사전 민감성)
- t. 사후 개방성(사전 개방성)
- u. 사후 이해성(사전 이해성)
- v. 양의 순위를 기준으로



으며, 개방성은 사전검사에서 평균 7.8(SD 2.43), 사후 검사에서 평균 14.2(SD 1.79)로 6.4 높아졌고, 이해성은 사전검사에서 평균 7.7(SD 1.05), 사후검사에서 평균 13.2(SD 1.56)으로 5.5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 등의 하위 요인들을 포함하는 대인관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제집단의 경우 대인관계의 하위 요인 모두에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보호관찰 수강 프로그램 참여는 2번째이다.

#### 4.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질적 대인관계 변화

프로그램 초기에는 비자발적 수강명령이라 고개를 숙이며 설명을 잘 듣지 않고 프로그램 참여시 약간 긴장하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몹시 지겨운 듯 표정을 지었으며, 집단원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행동을 보였다. 자신의 소개를 위해 인디언 별칭짓기를 한 후 인터뷰를 통해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면 프로그램 참여 동기를 증진 시키면서, 성격검사를 통해 타인의 성격이 나와의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알게 되었다. 처음 해 보는 것이라 낯설어하면서도 호기심을 보였다. 차의 유래, 효능, 다도구 명칭을 알고 난 후, ‘부풍향차보’를 재연하기 위해, 차잎을 채다 후, 몸차, 맘차, 영차, 내차를 만들어 봄으로써 자신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프로그램 중기에는 자신이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이 ‘대접 받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다른 사람한테 차를 어떻게 대접하는지와 예절을 배움으로서 ‘대인관계에서 예절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다음은 대상자들이 적은 소감문의 일부이다.

“친구들에게 차 대접을 하면서, 뭔가를 할 수 있어 행복 했어요” (수박같은 시원함)

“차 수업하면서 행복감을 느꼈다” (나무)

친구에게 진심으로 우리나라는 마음으로 예를 갖추어 우린 차를 대접하니 스스로가 마음이 차분 해 지고 친구의 소중함도 체험을 하였다함.

“내 자신이 이렇게 자랑스러워요” (햇살)

“저를 낮추었는데도 기분이 안 나빠요” (굴)

프로그램 참여 초기는 위축되어 있거나,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에서, 프로그램 중반기에는 비교적 편안한 자세로 차분 해 지며 침착하고, 올바른 생각, 남을 생각하는 배려심도 보였다.

“여기에 오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하늘)

“나도 나중에 이 학교에 오고 싶다” (수박같은 시원함)

“한복 입고 절을 배우는 예절이 무엇이든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시원한 봄바람)

특히 하늘의 경우는 초기에는 진행자들이 손을 잡아도 탁 뿌리치고 인사도 건성으로 하고,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하며, 관심과 친절 등 은근히 반항적이었지만, 중기로 갈수록 멋지게 살고 싶고 봉사도 하고 싶다고 하면서 ‘굴’로 별칭을 바꾸었다.

초기에 말없고, 무표정 했으며, 모든 것에 관심이 없었는데 회기가 거듭 될수록 이야기도 많이 하고 발표도 하며, 밝게 웃는 모습을 보였다.

프로그램 후반에서 가족속의 소통으로 가족을 이해하고 가족과 합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족의 생태계를 통해 나를 이해하고, 가족 갈등 문제를 재구조화 해 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서 자신의 내면의 동기와 갈등, 중요한 인물들에 대한 정서적 태도, 그의 가치관 등이 투사될 수 있었다.

부모님께 한복 입고 정성스럽게 우린 차를 대접하고 큰절 3배를 한 후,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부모님들이 기뻐하는 모습에서 다같이 행복해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서비스센터에서 어르신께 직접 우린 따뜻한 차를 대접하면서, 마음속에서 우리나라의 친애

와 공경의 마음으로 큰절을 올렸다. 서로 손을 잡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친조부처럼 정성스럽게 안마도 해 드리며 노래도 같이 부르고 소통의 장이 되었다. 스스로 없이 어르신들을 안아도 주고, 격려의 말씀에 고맙다고 인사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물건을 훔친 것이 부모님께 볼 면목이 없어요.” (동물나라)

“엄마께 효도를 할 수 있어 감사해요” (헛살)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마음이 편하고 뿌듯하다” (날개)

“엄마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고 나의 분노도 좀 가라앉힐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참 좋았다” (동물나라)

“어른 공경하는 것도 새로이 알게 되었으며 뜻 깊은 하루가 되었다” (동물나라)

“어르신들의 격려에 힘을 얻을 수 있었고 마음이 행복해졌다” (수박같은 시원함)

보호관찰 청소년의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본 프로그램 초기에는 구체적인 목표도 없고 의욕도 없던 친구들이 프로그램 회차가 더해 갈수록 변화 하는 모습을 보였다. 분노표출을 하고 난 후 표정들이 많이 부드러워졌고, 소감문 작성 시 무성의하게 하던 것이 표정이 밝아지고 수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표현방법이 더 세밀해 졌다. 수업 시작 시 명상과 참나다례를 익힘으로써 마음가짐이 겸손해 지고 상대방을 인정하며 차를 대접하는 집빈다례를 통해 자신을 낮추는 법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프로그램의 중기에는 대상자들이 서로 대접 받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하여 친구들에게 대접하고 예절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으며 프로그램의 후기에서는 가계를 통해 가족구성원들의 역할을 이해하게 되었고 가족의 갈등을 해소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가져올 수 있었다.

따라서 보호관찰 청소년의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태도와 적극적 참여 정도,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진지함, 분노조절 및 감정의 이해 부분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비행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인론적 접근인 대상관계적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으로 대인관계를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 후 프로그램 참여 전후 대인관계가 어떤 변화과정을 보이는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개인의 문제행동인 비행 교정에만 초점을 두기 보다는 청소년기 특성상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한 참나다례와 친구들과 예절을 통해 소통하는 집빈다례, 가족관계의 조화를 도모하는 가족다례, 그리고 지역사회 어르신과 연계되는 행복다례를 개발하여 대인관계를 나 자신, 친구, 가족, 지역사회까지 통합적으로 대상관계적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인관계의 요인이 양적으로 분석되었다. 그 결과는 만족감이 사전 7.6(SD 1.08), 사후 12.6(SD 1.65)로 5점으로 높아졌고, 의사소통은 사전 6.1(SD 1.6), 사후 11.1(SD 0.88)로 5점 높아졌고, 신뢰감은 사전 5.5(SD 0.97), 사후 9.5(SD 0.53)로 4점 높아졌고, 친근감은 사전 5.0(SD 1.5), 사후 9.1(SD 1.1)로 4.1점 높아졌고, 민감성은 사전 3.6(SD 1.08), 사후 6.1(SD 1.10)로 2.5점 높아졌고, 개방성은 사전 7.8(SD 2.44), 사후 14.4(SD 1.78)로 6.6점 높아졌고, 그리고 이해성은 사전 7.7(SD 1.06), 사후 13.0(SD 1.50)로 5.3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위의 하위요인들을 포함하는 대인관계가 향상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의 사전, 사후를 비교해 본 결과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 등의 모든 대인관계의 하위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 평가는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을 10회기로 준비 단계, 초기단계, 중기단계, 후기단계, 그리고 마무리단계로 구성 하였다. 그 결과 프로그램을 통하여 변화된 모습은 회기가 갈수록 모습이 단정해 지고 밝은 태도로 바뀌었으며, 친구와 진행자를 대하는 모습도 진지해지고 자연스러워졌다. 분노표출 다루기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미해결된 분노와 감정을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었으며, 가족속의 나 만나기를 통해서 가족문제를 탐색하여 가족의 중요성을 알고 가족의 정서적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고 참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속에서 어르신과 행복다례를 통해 조손관계를 형성하여 좋은 관계 체험을 하고 보다 폭넓은 대인관계 경험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기존의 다른 프로그램들[13-15]에 비해 특히 대인관계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프로그램에 심리내적으로는 대상관계이론을 원인론적으로 접근하며, 대인관계를 보호관찰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친구, 지역사회 어르신 등을 함께 참여시킨 통합적 관계회복의 접근에 기인한 긍정적 결과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론을 바탕으로 제안하자면, 보호관찰 청소년들에 대해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보호관찰 청소년의 비행의 원인을 개인적 조점보다는 청소년의 시기상 특성과 가족관계, 사회 환경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관점이 요구된다. 그리고 청소년 개인의 문제 요인보다는 가족 역기능에 의한 문제로 인식된다. 따라서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접근은 건강환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우리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사회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매개가 될 것이다.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해 개발된 본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호관찰 청소년과 차문화치료에 대한 지식을 겸비한 사회복지사의 역량도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의 지속성을 평가하기 위해 참여하였던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화과정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대부분의 보호관찰 청소년 프로그램은 보호관찰 청소년 집단을 통합적으로 진행하므로 집단의 순수성이 저해되고 치료의 효과도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령별 그리고 범죄 유형별, 처분기간별, 그리고 보호관찰 경험 등 다양한 유형별 동질성이 확보된 치료집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1] 옥필훈, "소년비행의 실태와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52권, pp.195-226, 2011.
- [2] 조홍식, "한국 소년보호관찰제도의 발전 방향: 보호관찰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국보호관찰학회지 제11권, 제2호, pp.7-34, 2011.
- [3] 하은옥, 김인숙, "청소년의 자긍심향상을 위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P시의 보호관찰 수강 명령을 받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국차학회지, 제18집, 제3호, pp.39-52, 2012.
- [4] 김보경,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5] 김옥란, *희망증진 집단프로그램이 아동보호시설 비행청소년의 희망감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상지대 평화안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6] 장희라, *보호관찰 청소년의 사회복귀 과정에 관한 연구: 자립 생활관 거주 청소년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7] 국영희, *비행 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단기 임파워먼트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연구: 소년원 가퇴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8] 이에령, *청소년비행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분석*,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9] 김남희, *보호관찰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 향상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10] 김영철,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와 영향력 분석*,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11] 백정연, *발달장애 보호관찰 청소년의 사회적응력 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 기술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12] 김인숙, *보호관찰 청소년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 개발-Intervention Research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13] 이희정, “보호관찰 청소년의 음악치료 프로그램 평가”, 진리논단, 제13호, pp.287-305, 2006.
- [14] 정기명, 보호관찰을 받은 청소년들의 경험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15] 이상주, 보호관찰 청소년의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경주 지역 선도조 건부 기소유예 청소년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저 자 소 개

김 인 숙(In-Sook Kim)

정회원



- 1998년 2월 : 부산대학교 가정학과(이학박사)
- 2014년 2월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03년 3월 ~ 현재 : 부산여자대학교 사회복지재활과 교수

<관심분야> : 사회복지, 대상관계, 차문화치료